

국제 이주 노동의 정치경제학 : 미국을 중심으로

이 충 훈*

국제 이주노동을 설명하는 정치경제학 이론들은 두 가지 중요한 한계에 직면 해왔다. 한편으로 그러한 분석들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국내정치나 사회적 균열, 그리고 정치적 동맹에 대하여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 정치의 발전과 유행은 이주노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심보다는 이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종교적 갈등들에 착목함으로써 국제 이주노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들의 저발전예 부분적으로 일조하였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할 것이다. 우선, 이주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서 국제 이주노동은 국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국제 이주노동은 사회적 균열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동맹의 지형을 산출하는가? 한 국가가 국제 이주노동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동맹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우선 기존의 국제 이주노동에 대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제 무역론의 요소중심적 접근에 바탕을 둔 로고우스키의 정치경제학 모델을 국제 이주노동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두 시기, 즉 보호이주시기(1925~1965)와 자유이주시기(1965~현재)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마지막 사례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국제이주노동이 계급 균열과 동맹, 그리고 정체성 균열과 동맹이라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두 축의 균열과 동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주제어 : 정치경제, 국제이주노동, 미국, 로고우스키(Ronald Rogowski), 정체성의 정치

*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과정

1. 서론

21세기 들어 국제이주의 문제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중심적인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의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2005년 프랑스에서의 이주자들의 시위, 2006년 미국에서의 이주자들의 시위, 그리고 최근의 버지니아 테크놀로지 대학에서의 총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제이주의 문제는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증대하는 국제이주의 영향력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이주를 보내는 국가들 역시 이주자들이 보내는 송금(remittance)이나 정보, 그리고 초국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의 형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이주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이주가 야기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정치화되거나 근래의 이슈들이 새롭게 재 정의되고 있다. 종교와 언어를 매개로한 문화적 갈등이 중심적인 정치적 화두로 자리 잡음에 따라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디아스포라(diaspora), 혼성주의(hybrid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이러한 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또한 이러한 논쟁에 발맞추어 이주자들의 통합(incorporation)이나 동화(assimilation) 및 배제와 관련된 시민권이나 거주권(denizenship), 혹은 인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가속화되어왔다. 정책적인 수준에서도 이주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안보와 같은 구래의 이슈들에서 국제이주의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통제 기술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인간의 생체적 지식을 담고 있는 여권이 많은 국가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관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 통과자들의 생체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물리적 국경선의 강화와 더불어, 이러한 푸코적 의미에서의 지식국가의 강화는 심지어 군수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이러한 중요성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주 노동의 원인과 그것의 정치적 영향을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저발전은 역설적이지만, 현대의 국제이주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현대 이주의 발전은 노동이나 계급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분석 범주와 단위보다는 인종이나 문화혈통성(ethnicity), 혹은 종교와 같은 분석범주와 그것의 담지체, 혹은 구성체로서의 이주 집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¹⁾

물론 이러한 관심의 이동은 국제이주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정치경제학적 설명으로 일방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이나 계급의 문제보다는 인종이나 문화 혈통성, 종교나 민족과 같은 문제들이 정치적 균열을 구성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이주 체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 그 산출 메커니즘이나 그들에 대한 정의 자체가 노동이나 계급의 요인과는 많은 경우 관련이

1) 담지체와 구성체라는 용어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론적 경향을 대표한다. 전자는 시원주의(primordialism)적 입장으로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종교나 문화혈통성을 가지고 있거나 피부색깔에 의하여 인종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반면에 후자는 특정한 집단이 종교나 문화혈통성, 혹은 인종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과 제도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입장을 의미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원 주의적 입장에서는 종교나 문화혈통성, 혹은 인종이 독립변수인 반면에,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그것들은 종속변수의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Jung(2006) 참조.

없다는 점도, 국제 이주 연구에서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저발전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세 가지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국제 이주를 분석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프랑스와 미국의 이주자들의 시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치경제학의 주요 범주들인 노동, 계급, 분배 등의 문제가 이주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데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호네프(Axel Honneth)가 주장하는 일원론적 인정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적 평등을 위한 분배 투쟁의 차원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이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의 주장과 분배적 정의의 요구간에는 서로 환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철학적, 방법론적 이원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Fraser and Honneth 2003). 이런 의미에서 국제이주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은 이주자들의 사회적 평등을 위한 분배 투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둘째로, 문화나 인종, 혹은 문화혈통성이나 종교 등의 범주로 이주 집단이나 집단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하는 이론들은 이주 집단 내부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이주 집단 내부의 차이나 억압의 기제를 드러내는데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인오킨(Susan Moller Okin)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비판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그녀에 따르면 문화로 정의된 집단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킴릭카(Will Kymlicka)식의 다문화주의는 만일 그 집단의 문화가 여성억압적일 경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녀는 권리의 보장 수준을 집단으로 끌어올리기 보다는 개인적 수준에서 유지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권리의 여성으로의 확대를 집단의 여성 억압적 문화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이해한다(Okin 1999; Kymlicka 1996). 이러한 오킨의 주장은 정치경제학

적 관점에서 이주 집단내부의 차이, 즉 계급적 차이를 고려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이주 집단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가 이주 집단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은폐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 이러한 이이주 집단 내부에서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고려는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론뿐만 아니라, 중간인론(middlemen theory)이나 문화혈통적 고립집단론(ethnic enclave)과 같이 이주 집단 자체의 계급적 동질성이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에도 중요한 비판이 될 것이다.³⁾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방법론적으로도 이주집단 내부를 계급의 범주로 분해(disaggregation)하고 이주노동자라는 범주로 다시 모으는데(reaggregation)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주자들(난민을 포함하여)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노동자로 시작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그들 모두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노동자의 정체성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권력관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기존의 이주국가의 제 세력들 간의 혹은 그들과 제 세력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해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 하에서 정치적 조직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조직화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지 사전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점은 이 연구가 정치경제학적 이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이주노동 문제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

2) 이주집단 내부의 계급관계에 착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이주 집단이 이주국(미국)의 각기 다른 계급적 층위로 동화(assimilation)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Zhou(1997)의 분절적 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을 참조.

3) 중간인론에 대해서는 Bonacich(1973)와 Bonacich and Light(1988)를 참조. 문화혈통적 고립집단론에 대해서는 Portes and Jensen(1987)과 Portes(1989)를 참조.

나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주노동에서 ‘이주’라는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문제로 역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대신에 이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모델의발전이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일종의 균형적 연구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노동의 국제적 이주는 한 국가의 국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그것은 한 국가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레짐(regime)의 유형이나 정치적 동맹(coalition)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가가 노동의 국제적 이주에 관하여 다른 정책을 취했을 때, 정치적 균열구조와 정치적 동맹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균열구조와 동맹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가? 그렇다면 노동의 국제적 이주와 관련하여 그러한 균열구조와 동맹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글은 국제 무역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의 이주와 여기에 대한 대응을 20세기를 걸쳐 현재까지의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글은 기존의 국제이주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둘째로, SIR(the second image reversed)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 국제무역의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로고위스키(Ronald Rogowski) 모델을 재구성함으로써 위의 질문을 해명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재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국제이주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모델의 적실성을 살펴볼 것이다.

2. 국제 이주 노동의 정치경제학적 이론들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공동연구를 전제한다. 국제이주 자체의 원인과 그것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은 각기 다른 분과학문에서 각기 다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다른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되어 왔다. 이 글에서 주된 초점을 맞추게 될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지리학, 인구학, 심리학, 법학, 인류학 등의 모든 분과학문들은 국제이주와 관련을 맺고 있다.⁴⁾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모든 이론들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할 것이다. 대신에 서론에서 제기한 국제 노동 이주의 원인과 그것의 정치적 영향을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주 노동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몇몇 이론과 모델들을 경제적 행위이론과 체계적 구조이론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⁵⁾

1) 미시적 경제 행위이론: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신경제론 (New Economy)

국제 이주를 설명하는 미시적 경제 행위이론들은 국제이주의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가족 혹은 마을)의 선택에서 찾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들은 대중적인 담론의 수준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델은 바로 신고전학과

4) 각 분과학문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 해설로는 Brettell and Hollifield(2000)를 참조.

5) 국제이주의 이론적 차원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경향, 그리고 비판적 고찰로는 메세이(Douglas Massey)와 그의 동료들의 일련의 작업을 참조. 대표적으로는 Massey et al(1998)을 참조.

적 경제학의 관점일 것이다. 이 관점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차이, (이주자)개인의 효용과 합리적 선택, 이주 시장의 균형을 강조한다. 신고전학파적 이론에 따르면 경제행위의 주체로서의 각 개인은 국제 이주를 통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즉, 각 개인들은 그들이 거주할 국가를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개인의 소득과 복리를 극대화한다. 국제 이주 시장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옵션들이 비교된다. 이러한 이주 대상국에 대한 정보와 옵션들은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개인들은 이 시장 내에서 이주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주한다면 어느 국가로 가야하는지를 결정한다. 즉, 이주할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나 이주에 따른 비용⁶⁾을 상쇄할 정도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장한다면, 각 개인들은 이주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 시장은 각 개인의 결정의 공간이자 동시에 이주자를 가려내는 공간이기도 하다(Borjas 1989; Todaro and Maruszko 1987).

이러한 신고전학파 모델은 이주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다. 이주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입각하여 경제적 균형을 향하여 움직이는 일종의 자연적 과정으로 묘사된다. 각 개인의 선택에 기반 하여 발생하는 국제 이주 노동은 이주노동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는 점까지 지속된다. 이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예를 들어,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자체의 왜곡을 가져온다. 국가의 개입이 없는 이러한 국제이주노동 시장의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는 임금(소득)이 낮은 지역과 임금(소득)이 높은 지역 간의 차이

6) 이러한 비용에는 직접적인 여행 비용, 이주와 직장을 찾는 동안 들어가는 유지비용,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따르는 기회비용,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적응비용, 기존의 친인척관계나 우정을 청산하고 새로운 유대를 형성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를 줄여, 국제적인 임금(소득)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신고전학과 모델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다룰 모든 이론들은 많건 적건 신고전학과 모델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이 글의 본래의 목적, 즉 국제 이주노동의 원인과 그것의 거시적인 정치적 영향과 관련해서만 신고전학과 모델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신고전학과 모델은 국제 이주노동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사회적, 지적 자본의 정도와 국제 인구 이동의 능력, 기회, 가능성은 정비례한다(Sklair 2001; Chiswick 2000). 이러한 사실은 신고전학과적 가정과는 달리, 국제 이주 노동시장이 대부분의 이주자들에게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대단히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실증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좀 더 중요한 비판은 신고전학과 모델이 왜 특정집단의 이주가 특정한 국가에 집중되어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왜 알제리계 이주자들은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고, 터키계 이주자들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는가? 반대로 왜 알제리계 이주자들은 독일로 이주하지 않고, 터키계 이주자들은 프랑스로 이주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국제이주노동이 개인의 선택보다는 이주 노동을 역사적으로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특정한 맥락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담론의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고전학과적 가정이다. 즉, 이주

7)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신고전학과 이론가들이 국제이주노동을 긍정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보저스(George Borjas)는 국제 이주노동이 발전국과 저발전국간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을 동질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주국에서의 평균 기술 수준의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한다(Borjas 1990). 반면에 국제이주를 보내는 국가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고급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개인들이 소유한 지적,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좀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으며, 이는 이주를 보내는 국가에서 '두 뇌유출'(brain drain)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Chiswick 2000).

노동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담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민족주의자(혹은 국가주의자)나 극우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종종 이용되기도 하는데, ‘선택’을 강조할 경우 자기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의미로,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할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국에서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 원천으로서 이들에 대한 일종의 비난이전(blame shifting) 효과를 낳는다.

이와는 달리 신경제론(New Economics)의 국제이주노동론은 두 가지 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비해 혁신적이다. 우선, 신경제론은 이주를 결정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계 혹은 중소기업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둘째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개인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 이주를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경제론은 여기에 더하여 가족이나 가계, 혹은 공동체가 처한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러한 집합적 행위자들이 국제 이주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 가족이나 가계, 혹은 공동체내에서 그 구성원을 이주노동자로 보내는 것은 그 가족의 전체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 원천을 다원화하여 시장의 실패상황 하에서나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원천의 다원화는 이주 노동자를 가진 가족의 이주 노동자를 가지지 못한 가족에 대한 상대적 소득을 증가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시장 실패와 상대적 소득 및 박탈감은 국제이주노동을 설명하는 핵심변수로 등장한다(Stark and Bloom 1985; Stark 1991). 즉, 시장의 실패 상황 하에서 한 가족의 상대적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감소할수록, 다른 가족들이 가족 내부의 구성원을 이주노동자로 보낼 가능성은 증대하고, 이러한 이주 열풍은 공동체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신경제론은 이주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비해서는 이주를 보내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가족이나, 가계, 혹은 공동체의 집단적 결정과정으로서 이주노동을 파악함으로써 국제이주노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선택에 대한 분석 단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기본분석 단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시킨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행위이론의 집단으로의 확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에 비해 신경제론의 정책적 함의는 보다 적극적이다. 국가의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개입을 불필요한 것으로 바라보는 신고전학파와는 달리 신경제론에서는 만일 국제이주노동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것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입의 방식은 이주노동 자체를 막거나 물리적으로 국경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이주노동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실패한 시장을 복구하거나 원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한다. 즉, 집합적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의 변화를 통하여 국제이주노동의 발생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고 사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핵심적인 가정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본국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공동체의 투자, 직업,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제이주노동의 산출 메커니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Taylor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제론은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외부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신고전학파에서 바라보는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답습한다. 즉,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이주자의 가족이나 가계, 혹은 공동체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파악하는 국제이주노동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

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신경제론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국제이주노동의 원인과 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그러한 이론들은 국제이주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균열구조나 정치적 동맹 혹은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거의 설명해주는 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신경제론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심지어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대중적인 수준의 담론에 있어서조차도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위력은 강력한 것이다. 또한 신경제론 역시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국가들에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정치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이 구성할 수 있는 정치를 예측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거시적 구조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이주노동 그 자체와 그것의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데 필수적이다.

2) 체계적 구조이론: 세계체제론과 분절적 노동시장론

체계적 구조이론들은 맑스주의적 정치경제론이나 구조중심적 접근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세계체제론은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의 구조적 조건들에서 발견한다. 반면에 분절적 노동시장론은 이주국에서의 노동 시장의 구조적 속성에 착목하여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세계체제론에서 국제이주노동은 세계경제 내에서 경제적 권력을 가지

고 있는 핵심지역과 세력이 자본을 위하여 저렴한 노동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의 동원은 세계경제 내에서의 위계 관계를 심화시키고 빈곤한 국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공평한 발전을 가속화했다. 이들에게 국제이주노동은 자본주의의 중심부와 주변부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배 고리중의 하나로 이해되었다. 경제적 투자 및 군사적 압력과 더불어 국제노동이주는 저 발전된 주변부를 중심부에 종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라는 것이다. 중심부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이주노동은 한편으로는 중심부 자본주의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지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연대를 가로막는데 일조하였다(Castells 1975; Castles and Kosack 1985; Sassen 1988).

따라서 세계체제론에서 국제이주노동은 경제적 행위이론들이 가정하듯이 개인이나 가족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의 전제조건인 확산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비자본주의 사회나 전자본주의 사회로의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침투가 국제이주노동을 가능케 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변부의 비자본주의 혹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주변부 농업구조와 관계를 변화시켜 전통적인 농업구조와 관계 속에서 토지와 결합되어있던 농업노동자들을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면서 국제이주노동을 위한 토대, 즉 일종의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달성한다. 물론, 농업구조와 관계의 변화만이 국제이주노동을 위한 토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투자에 의한 외국계 공장 역시 지역의 생산 기반을 해체하고,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 패턴과 작업 의식을 근대적 방식으로 변화시키면서, 국경을 가로질러 이주할 노동자들(특히 남성)을 양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이주노동은 자본 및 재화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자본 및 재화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향하는 반면에, 국제이주노동의 방향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향한다는

것이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미디어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이러한 세계체제론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론 역시 신고전학과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주연구자들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우선 체제이론가들은 동일한 분석레벨에서 세계체제론을 비판한다.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국제인구이동은 세계경제체제에 의존적이다. 만약 국제인구이동이 체제로서 파악될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경제체제의 하위 체제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곧 국제이주의 경제환원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구이동은 세계경제체제의 하위체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국가)체제의 하위체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난민의 산출 메커니즘은 국제정치(국가)체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기실, 난민의 정의, ‘국가 없는 사람들(stateless people)’ 그 자체가 국제정치(국가)체제의 존재 그 자체를 반증하고 있다.⁸⁾ 물론 하위체제로서의 국제 인구이동이 경제와 정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나 문화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국제체제적 관점에서는 국제이주를 하나의 하위체제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이주노동이 단지 세계경제체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실증한다.

또한 세계체제론은 중심부 국가들의 이주정책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세계체제론은 왜 국가가 이주정책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세계경제체제에 반하는 정도까지 국제이주를 차단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불어 세계체제론은 중심부 국가들의 변이(variation)를 설명하는데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왜 중심부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이주

8)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난민의 문제는 또 다른 국제체제, 즉, 국제규범(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하게 공헌했다. 이러한 발전에는 양차대전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국가형성과정에서의 대규모 난민의 발생, 냉전체제,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인종이나 민족갈등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반대로 이러한 국제인권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서유럽에서의 시민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의 문제에 봉착하는가?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이주자들의 종교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반면에, 왜 미국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 또는 중심부 국가들에서의 국제 이주 정책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은 비단 중심부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부나 반주변부 국가들의 대부분은 80년대 후반까지 몇몇 국가들⁹⁾을 제외하고는 자국민의 국제 이주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하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 일종의 반체계 운동(anti-system movement)의 일원으로서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세계체제론이 국제적인 경제 구조에 착목하여 국제이주노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면, 분절적 노동시장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은 이주국의 경제구조(노동시장 구조)에 착목하여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분절적 노동시장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하다. 국제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 개인이나 가족, 세계경제체제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국의 만성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는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지, 그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론의 대표자인 피오레(Michael Piore 1979)는 임금과 사회적 지위

9) 한국은 국제이주의 규모 상 국제이주에 소극적인 국가는 아니었다. 대신에 국제이주에 적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필리핀, 멕시코 등)과는 달리 국제이주가 국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control)되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예외적이다.

10)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봉착하여 일군의 세계체제론자들은 국제이주의 분석단위를 글로벌 도시(global city)로 재정의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도시론에 따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과 같은 국제적 도시들은 상호간의 집약적인 인적(노동), 물적(자본), 정보적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 유사성을 증대시켜 온 반면에, 그것들이 속한 국가의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도시론에 대해서는 Sassen(1991)을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글로벌 도시의 성장과 근대국가의 국제이주에 대한 통제의 강화는 상호모순적인 것이다.

간의 상관관계에서 그 원인을 발견한다. 이 관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 역시 높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즉, 임금이 사회적 지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저임금 직업에 대한 노동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직종의 임금이 낮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저임금 직업에 대한 임금을 높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임금의 구조적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서의 임금 상승 역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저임금 직업에 대한 임금 상승은 언제나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과 위협의 압력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국내의 노동력을 위하여 저임금 직업에 대한 임금을 높이는 해결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해결책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선택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또한 이주국에서의 산업 섹터(sector) 간의 분화와 발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본집약적인 섹터의 경우, 숙련 노동자들은 비교적 장기간의 집약적인 교육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노동과정상에서의 권한도 상대적으로 강하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섹터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집약적 섹터의 저임금과 전망의 부재는 국내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섹터에 대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노동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국제이주노동의 책임을 이주

노동자들의 선택과 효용의 극대화, 혹은 위험의 분산 등에 돌리는 미시적인 경제 행위이론과는 정반대의 담론을 사회에 제공한다. 즉, 국제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의 효용의 극대화에 입각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이주국의 노동수요에 대한 필요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유럽국가들이나 중동의 원유산유국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등과 같은 신흥 이주국들에서의 국제이주노동이 일종의 노동자초빙제도(guestworker program)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의 설명력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세계체제론이 강조하는 국제이주노동을 가능케 하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맥락들 무시함으로써 이주국들 외곽의 지역에서는 임금과 사회적 지위간의 상관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종의 산업예비군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해야 할 위험이 있다. 즉, 국제이주노동이 필요한 이주국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는 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이주노동을 산출하는 국가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어떠한 직업이나 섹터에 이주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왜 어떠한 직업이나 섹터가 특정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숙련노동자들의 이주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 구조이론들은 미시적 경제행위 이론들에 비해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경제학적 질문, 즉, 국제이주노동이 구성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다루었던 체계적 구조이론과 미시적 경제이론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이주노동이 야기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구성을 시도해보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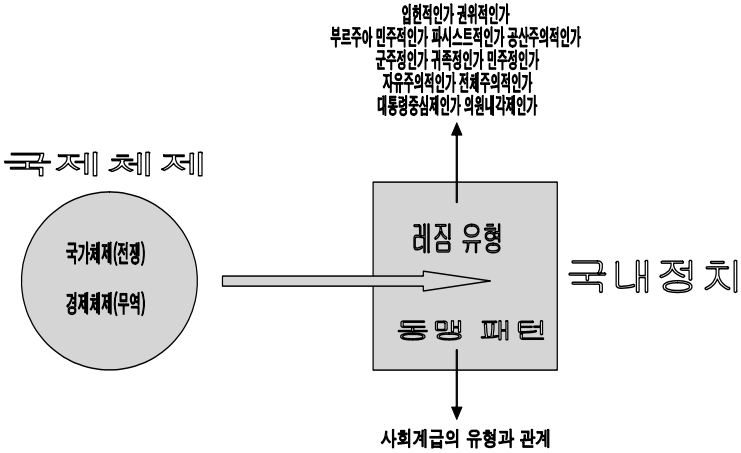
3. 이주 노동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재구성

1) SIR(the second image reversed) 모델과 국제체제로서의 인구이동

SIR의 기본 가설은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맥락이 국내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맥락을 국내정치나 국가들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부차적인 이미지로 파악하는 국제정치론과는 달리 SIR은 국제적 맥락이 어떻게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한다. 국제적 맥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비교정치론과는 달리, SIR은 국제적 맥락을 비교 정치에서의 주요 독립변수로 취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SIR은 정치학의 주요 분과학문들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간의 이론적 가교를 세우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구레비치(Peter Gourevitch)에 따르면 SIR에서 중심적인 독립변수로는 크게 두 가지, 즉 국제 국가 체제와 국제 경제 체제를 들 수 있다. 이 독립변수들은 한 국가의 레짐의 유형과 정치사회적 동맹의 유형을 설명한다. 즉, 국제국가체제와 국제경제체제의 갈등, 구조,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 등이 국내의 정치사회적 세력과 세력들간의 정치적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Gourevitch 1978, 882-883). 이상의 내용은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SIR의 기본모델



이러한 SIR의 기본모델은 광범위한 역사적 연구에 기반하여 도출되었고,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톨리(Charles Tilly)는 서유럽에서의 근대국가형성과 발전을 국가간의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발견하였다(Tilly 1975; 1991). 반면에, 힌츠(Otto Hintze)를 필두로 한 전통적인 국제국가체제 및 안보이론가들은 국제국가체제의 지리적 환경이 한 국가의 레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영국과 프러시아간의비교를 통하여 추적하였다. 즉, 영국의 경우 영국해협이 있었기 때문에, 육군보다는 해군을 발전시켜야 했고, 해군의 발전은 국내의 억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육군의 상대적인 저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유주의적이고 입헌적인 정치적 질서와 헌법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프러시아의 경우는 주변 국가들과 영토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육군을 중심으로 한 상비군이 발전했으며, 이는 독일의 정치적 발전,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Gourevitch 1978, 896-897).

스카치폴(Theoda Skocpol)의 구조주의적 혁명론 역시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전쟁에서의 패배, 침략의 위협, 그리고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 등의 국제국가체계의 변수들이 혁명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변수(충분 조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방식은 다르지만 SIR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¹¹⁾

물론, 전쟁과 무역이 국제적 맥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맥락을 전쟁과 무역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나 국제적 규범 등과 같은 변수들도 국내의 레짐 유형과 동맹 패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 노동자 초빙제도(guestworker program)에 의해 촉발된 탈민족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의 발전을 추적한 소이살(Yasemin Nuhoglu Soysal)은 그 동학의 원인을 인권(human right)에 기초한 지구적 담론(global discourse)의 발전에서 찾는다(Soysal 1994). 즉, 유럽의 각 국가들이 다양한 유형의 민족적 소속감(national belonging)에 기초한 시민권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 인권 레짐의 담론이 각 개별 국가들이 받아들인 초청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정당성을 제공했고, 그러한 지구적 담론에 기초하여 각 개별 국가들의 시민권이 각각의 집단적인 민족적 소속감을 강조하는 민족적 시민권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탈민족적 시민권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¹²⁾

11) 이러한 스카치폴의 주장에 대한 탁월한 방법론적 비판으로는 Geddes(2003)를 참조. 게데스는 국제국가체계가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스카치폴의 주장을 사례들(특히 남미의 사례들)을 추가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논박한다. 특히 그녀는 스카치폴의 사례 중 프랑스가 당시의 국제국가체계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할만큼 약한 국가가 아니었으며, 남미의 여러국가들 역시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지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제국가체계의 압력이라는 변수의 인과적 영향력이 스카치폴이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12) 이와 유사하게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norm)이 일본의 시민권을 탈민족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왔다는 논의로는 Gurowitz(1999)를 참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가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IR의 문제의식은 국제적 맥락의 국내 정치적 함의를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왔다.¹³⁾ 그렇다면 SIR의 문제의식은 국제이주노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국제이주가 독립된 국제 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우선 앞서 세계체제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간략하게 다루었듯이, 국제이주는 다양한 국제체제의 하부체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이주를 파악할 경우, 국제이주체제는 독립되어 있는 국제체제라기 보다는 각각의 국제체제가 가지는 독자성에 의존하는 종속적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하더라도 국제이주체제는 국제체제로서 그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국제체제(예를 들면, 경제나 국가)의 하부체제로 일방적으로 환원하기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이주를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출발점은 영토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에 단순한 관찰로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첫째, 인구 이동의 흐름, 즉 인구 이동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확인하고, 둘째, 인구이동의 규모를 확인하며, 셋째, 그러한 인구이동의 지속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제이주체제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크게 대서양체제, 동북아시아체제, 남아시아체제라는 세 개의 지역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McKewon

강력한 비판으로는 Joppke(1998)를 참조. 그는 인권에 기반한 서구에서의 시민권의 발전이나 이주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의 발전이 국제적 규범이나 국제인권레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의 투쟁들(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운동)에 의해서 확보된 권리의 이주자들에 대한 일종의 확대라고 주장한다.

- 13) SIR의 시각에서 미국의 정치발전을 가장 포괄적으로 조망한 최근의 연구로는 Katznelson and Shefter(2002)를 참조.

2004).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이주를 파악하면, 1960년 이후는 기존의 지역체제의 재활성화(reactivation), 새로운 지역체제의 형성(특히 중동지역과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한 지역체제들의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결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제이주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국제이주의 실제적인 연결망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망은 식민주의나 정치적 관계, 무역, 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소위 네트워크 이론 혹은 사회적 자본이론이라고 알려진 이주이론들은 이러한 연결망의 형성을 국제이주의 핵심적인 동학으로 이해한다. 둘째로, 적극적인 체제이론은 지역간의 비교를 통해서 체제의 일반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하부체제간의 비교를 통해 그러한 하부체제들의 독자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의 국제 이주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일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한 국가의 이주정책이 강화되더라도 국제이주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국제이주체제론은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체제 자체의 논리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국제이주의 중단은 국제이주체제 자체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국제이주의 중단과 재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체제 외적 요인이나 다른 체제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국제이주체제를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할

14)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중단과 재개의 논리를 체제내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체제에 신고전학파적 균형이론을 도입할 경우 체제가 균형의 상태에 있을 경우 국제이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균형이 깨지면 다시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국제이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율과 노동

것이다.

2) SIR의 정치경제 모델과 국제 이주노동

그렇다면 국제이주노동의 원인과 그것의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스토폴러-사무엘슨(Stopler-Samuelson)의 국제무역론에 기초하여 SIR의 관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한 로고위스키(Ronald Rogowski)의 모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선 스토폴러-사무엘슨이 주장하는 국제무역론의 기본적인 공리는 아래와 같다.

■ 한 사회에서 보호무역은 희소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사회에 불충분하게 있는 요소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된다. 반대로 자유무역은 그러한 생산자와 요소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 반대로 보호무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사회가 풍부하게 보유하는 있는 요소의 소유자와 그러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반대로 자유무역은 그러한 소유자와 생산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하다면, 보호무역은 자본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고 노동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다. 반대로 자유무역은 노동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자본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다(Rogowski 1987, 1122).

이러한 기본적인 공리에 입각하여, 로고위스키는 4가지 유형의 요소 배

의 수요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너무 많은 역사적 증명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Rogowski 1987, 1123).

〈표 1〉 토지-노동 비율에 따른 생산 요소의 상태

토지-노동 비율

	High	Low
선진경제	<p>풍부한 요소: 자본, 토지 A 부족한 요소: 노동</p>	<p>풍부한 요소: 자본, 노동 B 부족한 요소: 토지</p>
후진경제	<p>풍부한 요소: 토지 C 부족한 요소: 자본, 노동</p>	<p>풍부한 요소: 노동 D 부족한 요소: 자본, 토지</p>

출처: Rogowski 1987, 1123

이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은 각각 토지-노동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두 유형의 국가로 구분된다. 이제 이 표의 구분과 스토프러-사뮤엘슨 법칙에 따른 기본적인 공리를 연결시켜 보자. 이 경우에, 토지와 노동의 비율이 높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A), 자본과 토지는 자유무역을 주장할 터인데, 그 이유는 자본과 토지의 요소가격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은 보호무역을 주장할 터인데, 그 이유는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노동의 요소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토지와 노동의 비율이 낮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B), 자본과 노동은 자유무역을 주장할 터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요소가격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토지는 보호무역을 주장할 터인데, 그것은 자유무역이 국내에서의 토지의 요소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후진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C와 D).

이러한 스토프러-사뮤엘슨 공리와 생산요소의 배열에 따른 각 집단의

경제적 행태는 국제이주노동을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파악할 경우,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각 집단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¹⁵⁾ 즉, A와 같은 지역에서 자본과 토지는 자유로운 국제이주노동을 주장할 것이고, 노동은 국제이주노동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주노동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C와 같은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우 자유로운 국제이주노동을 주장할 것이지만, 노동의 경우는 A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주노동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B와 D의 지역에서는 국제이주노동을 둘러싼 이와 같은 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노동의 유출(exit)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형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즉, B의 경우 토지는 노동의 유출에 소극적일 것이고, D의 경우 자본과 토지 모두 노동의 유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이주노동과 관련된 대립구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로고위스키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대립구조의 성격을 <표2>와 같이 이해한다(Rogowski 1987, 1125).

15) 기본적으로 국제무역론에는 생산 요소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은 그러한 요소가 집약된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토지집약적) 상품들이다. 오직 상품만이 이동한다는 이러한 가정은 우선, 국제무역론이 형성되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국제무역론의 기본적인 공리가 마련된 40년에서 60년대까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생산 요소 자체(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유례없이 차단되어 있었던 시기였다. 둘째로, 무역의 관점에서 노동의 이동이 파악될 경우 노예 무역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표 2> 토지-노동 비율에 따른 정치적 균열 구조

		토지-노동 비율	
		High	Low
선진경제		계급 균열 (A) 자유무역: 토지와 자본 Vs. 보호무역: 노동	도시-농촌 균열 (B) 자유무역: 자본과 노동 Vs. 보호무역: 토지
		도시-농촌 균열 (C) 자유무역: 토지 Vs. 보호무역: 노동과 자본	계급 균열 (D) 자유무역: 노동 Vs. 보호무역: 토지와 자본
후진경제			

출처: Rogowski 1987, 1125

<표2> 에 따르면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A와 D지역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계급균열에 기반한다. 반면에 B와 C지역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균열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노동 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국제이주노동은 A지역의 경우 계급균열의 산물로, C지역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간의 균열구조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었을 경우에, 국제이주노동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A지역의 경우 토지와 자본이 노동과의 계급균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금지는 노동이 그러한 계급균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이주노동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은 노동과 자본 및 토지간의 계급투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C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국제이주노동은 농촌의 승리를 의미하며,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통제는 도시의 승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B지역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의 유출은 도시와 농촌의 균열에서

도시가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D지역에서는 노동이 계급균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제이주노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의 의의는 앞서 검토했던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설명했던 이론들과 비교하면 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이러한 국제이주노동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로고위스키 모델(이하 재구성 모델)은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이주국의 구조적 속성(생산요소의 배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분절적 노동시장론과 일치한다. 자유로운 국제이주노동이 궁극적으로는 중심부의 자본 및 토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세계체제론과 그 관점을 공유한다. 또한 국제무역론의 기본적인 공리, 즉 스토폴러-사무엘슨 공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전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동시에, 이주노동을 보내는 지역에서의 집합적인대립구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경제론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성 모델은 생산요소에 따른 제세력간의 대립이 국제이주노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구조이론과는 달리 행위자들의 결정 메카니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계체제론과 분절적 노동시장론에서 강조하는 세계자본주의구조나 국내노동시장의 구조적 속성은 국제이주노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국제이주노동을 결정적인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구성 모델은 사회세력간의 투쟁이 국제이주노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체계적 구조이론들에서 강조하는 구조를 국제이주노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반면에 사회세력간의 투쟁을 충분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미시적 경제 행위론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구성 모델의 관점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상정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과는 달리 집단을 행위의 분석 단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주를 보내는 지역의 집단적 행위자를 문제시하는 신경제론과는 달리 이주국가의 집단적 행위자들간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재구성 모델은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에 비하여 비교 방법론적으로 좀 더 풍부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이주노동의 정치경제학적인 비교의 준거들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준거틀내에서 사례를 가능한 극대화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 E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생산요소의 배열과 경제의 선·후진성에 따라 국제이주노동의 관점에서 그 지역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요소 배열에 변화를 겪었다면, 시계열적으로 최대한 네 개의 사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조적 위치에서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제 세력들간의 투쟁을 고려할 때, 각 위치는 다시 최대한 두 개의 사례를 얻을 수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지역은 최대한 8개의 사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지역에서 산출된 사례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다. 또한 국제이주노동을 산출하는 지역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을 각 지역의 상이한(혹은 동일한) 균열구조와 투쟁양식을 고려하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노동의 국제 이주가 개시되고 중단되며, 다시 재개되는 맥락과 그 이유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데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 모델이 지닌 한계 역시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델은 오직 국제이주의 한 측면, 즉 분배적 차원의 문제와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델은 국제이주의 다른 차원의 정치, 즉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바가 없다. 물론, 국제이주의 분배적 차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정체성의 정치와 그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국에서의 사회정치적 세력간의 투쟁에 의해서 국제이주노동이 결정된다는 입장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사회정치적 세력간의 동맹과 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균열구조, 즉 정치경제적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체성의 균열구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균열구조와 그것이 야기하는 규범적 요구는 집합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주자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구성 모델에서는 집단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그러한 사회정치적 갈등과 투쟁에 있어서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구성 모델과 그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20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이주노동이 구성하는 균열구조와 그것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적 세력들간의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미국 사례

미국의 20세기는 <표1>과 <표2>에서의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의 이러한 발전은 자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본의 성장은 19세기중반까지만 해도 C에 속해있었던 미국을 A의 위치로 이동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노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세기는 크게 두 개의 시기, 즉 1925년부터 1965년까지의 보호이주 시기와 그 이후의 자유이주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

16) 미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모든 통계는 1925년에서 65년까지의 시기가 19세기 중반이래로 이주자가 가장 적은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

전 이전까지의 자유무역 시기는 노동의 이주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자유이주의 시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특히 아시아로부터의 이주 노동을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1882년에 제정되어 1943년까지 유지된 중국인 배제 법안은 중국인 이주 노동자를 완벽하게 차단했다.¹⁷⁾ 또한 일본과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과 그에 부속되어 있던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즉, 대서양 이주체제는 열려있었지만, 태평양 이주체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⁸⁾ 이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1925년 이전의 자유무역 시기는 이주 노동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자유이주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965년 이후는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그러한 인종적 제약을 완전히 철폐했다는 점에서 국제이주노동의 자유이주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이주노동에 의하여 야기된 정치경제학적 균열구조와 정체성의 균열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정치적 세력들(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간의 동맹과 대립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자.

준다. 반면에 1990년대를 전후한 시기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이주자가 들어온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전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이주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으로는 높은 수치의 이주자가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이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을 포함한 자료로는 CD-ROM으로 나와 있는 Barde et al.(2003)에서의 '이주' 부분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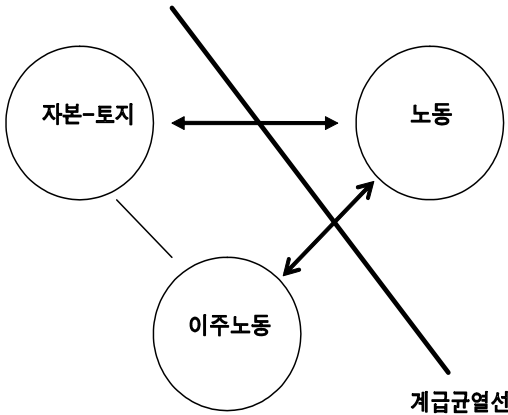
- 17) 중국인 배제법안은 주로 미국 서부의 토착주의자(nativists)와 노동 세력의 지지로 형성되었지만, 그 폐지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2차세계대전에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싸운 공과가 바로 중국인 배제법안의 폐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18) 이 점에서 필리핀은 예외이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 비하여 필리핀인들은 미국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특히 미국 서부 및 남부의 인종주의자들과 노동은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필리핀의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필리핀을 독립시킴으로써 필리핀인들의 이주를 차단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Ngai(2004, 특히 3장)를 참조.

1) 보호 이주의 형성과 전개

재구성 모델에 따르면 보호무역 시기는 국제이주노동이 가져온 계급균열에서 노동이자본과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25년부터 발효된 존슨-리드 이민법안(the Johnson-Reed Immigration Act)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국제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승리했다는 점을 예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이주노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존슨-리드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계급균열은 재구성 모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본-토지 대 노동의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본-토지의 경우 노동의 요소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이주노동을 이용했다. 반대로 노동의 경우 그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이주노동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의 요소가격만이 이주노동에 대한 이러한 계급균열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의 경우, 노동의 파업이나 태업, 혹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노동을 이용했다. 반대로 노동 측에서는 이주노동이 노동의 조직화를 방해하고 자본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낮추려는 자본의 전략으로 이해되었다. 노동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중국계, 멕시코계,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는 따라서 인종주의라기보다는 이러한 계급균열 속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을 포함한 계급균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계급균열과 이주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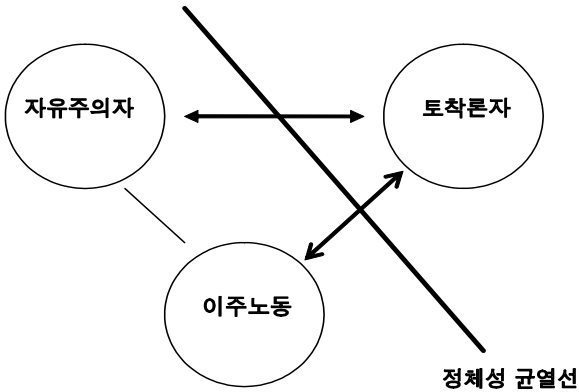


그러나 국제 이주노동에 대한 반대한 것은 노동뿐만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소위 토착주의자들(nativist) 역시 이주노동에 반대하여 다양한 방식(교회, 학교,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었다. 이후 미국의 보수주의(혹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결합될 이러한 토착론자들은 반카톨릭, 반사회주의, 그리고 과학적 인종주의를 기치로 이주노동뿐만이 아니라 국제이주 그 자체에 적대적이었다.¹⁹⁾

소위 미국의 자유주의자(liberal)들은 이러한 토착론자들의 정확한 반대자들이었다. 이들은 토착론자들과는 달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반인종주의를 표방했다. 따라서 이주노동뿐만 아니라 국제이주 그 자체에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토착론자들과 자유주의자들간의 대립은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또 다른 균열, 즉, 정체성 균열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을 포함한 정체성 균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미국의 토착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으로는 Higham(1955)을 참조.

〈그림 3〉 정체성 균열과 이주노동



이러한 두 가지 균열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제이주노동이 추동한 균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균열들은 또한 이주노동을 대상으로 사회정치적 동맹 및 배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이러한 계급균열과 정체성 균열은 이주노동에 대한 ‘이상한 협력관계’(strange bedfellows)를 형성했다(Zolberg 1999, 88). 한편으로 전통적인 토착주의자들과 노동은 이주 노동을 제한하는 동맹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 및 토지와 자유주의자들은 이주 노동을 요구하는 동맹을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이상한 이유는 미국에서 다른 이슈들에 대한 동맹관계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노동 이슈에 대하여 노동과 보조를 맞추어왔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중심으로 한 토착주의자들은 다른 자본-토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자본-토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흔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민주당(자유주의+노동)과 공화당

(보수주의+자본-토지)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슈들에서의 대립은 이주 노동에 의하여 형성된 동맹관계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1924년에 제정되어 19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존슨-리드 이민 법안(the Johnson-Reed Immigration Act)은 이러한 측면에서 계급균열에서의 노동의 승리뿐만 아니라 정체성 균열에서의 토착주의의 승리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동과 토착주의의 계급-정체성 동맹의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910년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미국에서의 이주인구를 바탕으로 각 인종들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자의 연간 수를 할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영국로 색슨이 전체 쿼터 수의 거의 과반수 정도(65,721명)를 차지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이주 세력층의 하나인 독일이 두번째(25,957명), 그리고 아일랜드가 세 번째의 쿼터(17,853명)를 할당받았다.²⁰⁾

이러한 인종 할당제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이주세력들(영글로 색슨)의 인종 구성 비율을 강화하고 다른 인종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슨-리드 법안은 노동보다는 토착주의자들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에 의한 통제 는 전자의 목표(즉 전통적인 이주세력들의 인종 구성비율의 강화)를 달성 하는 데는 실패했고, 후자의 목표(다른 인종들의 이주 제한)에는 성공적이 었다. 즉, 전통적인 이주세력은 할당량을 채울 정도로 이주해 오지 않았 고, 다른 인종들은 실제로는 더욱 많은 할당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된 할당으로 인하여 이주가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이주노동에 대한 노동과 토착주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토착주의자들이 의도한 목표는 실패했지만, 노동의 이주노동에 대한 반대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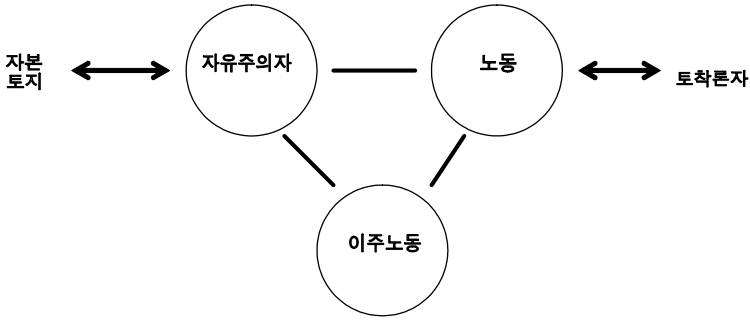
20) 이 외에 폴란드(6,524명), 이탈리아(5,802명), 스웨덴(3,314명), 네델란드(3,153명), 프랑스(3,086명), 체코슬로바키아(2,874명), 러시아(2,784명) 순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보호이주 시기는 1965년 이민 법안이 인종 할당제를 폐지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이주노동에 대한 계급균열과 정체성 균열은 어떠하였는가? 이 시기 동안 이주노동에 대한 계급균열과 정체성 균열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뉴딜일 것이다. 뉴딜은 이주노동에 대한 계급균열과 정체성 균열 모두를 해체하고 이주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정치적 동맹을 낳았다.

코헨(Lizabeth Cohen 1991)이 분석한 미국에서 뉴딜(the New Deal)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노동의 거대한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비록 그녀의 분석이 시카고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노동의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 집단²¹⁾을 공동체적 삶의 이웃으로서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 자체의 사회적 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이상은 또한 민주적 자유주의자들의 사유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뉴딜의 형성은 계급균열로 나누어졌던 노동과 이주노동을 통합하고, 이주노동과 관련된 기존의 계급-정체성 동맹을 해체하여, 노동과 이주노동,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형성한 일종의 삼각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각 동맹은 <그림4>로 나타낼 수 있다.

21) 이주노동자 집단 역시 정당과 선거,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미국 사회에 통합(incorporation)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이주자의 통합의 논의에 대해서는 Plotke(1999)와 Jones-Correa(2005)를 참조. 그러나 두 논자 모두 전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통합의 매개였던 정당과 선거, 그리고 노동조합이 통합의 기능을 상실해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필자는 정당과 선거가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기능을 상실했다는데 동의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는 자유무역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림 4〉 뉴딜 삼각동맹과 이주노동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삼각동맹을 저해하는 몇몇 요인들 역시 존재하였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은 대서양과 태평양 라인 모두에서 정체성 균열을 가속화시켰다. 대서양 라인에서는 유대인 난민에 따른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문제가 있었고 태평양 라인에서는 모든 일본인이 제5열로 간주되어 캘리포니아의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반면에 1942년부터 1964년까지 시행된 미국판 노동자초빙제도인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 Program)은 멕시코로부터 비숙련 농업노동자와 철도노동자를 유입함으로써 특정한 자본과 토지를 위한 일종의 뒷문(back door)을 열어놓았다.²²⁾

2) 자유 이주의 형성과 전개

22) 멕시코 정부와 체결한 이 프로그램은 멕시코계 불법 이주 노동자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1964년에 종료된 이유는 계급균열상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과 착취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에 있어서 자유무역으로 들어서는 분기점인 1965년 이민 법안(Hart-Celler Act)은 인종에 대한 할당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이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자유이주의 형성 과정은 계급 균열구조에서 국제이주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본과 토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자본과 토지의 기대와는 달리, 1952년 이민 법안(the McCarran-Water Act)은 심지어 공산주의자와 좌익 활동을 한 전력 이 있는 이주자의 이주를 금지시켰고, 그나마 뒷문을 통해 유지되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도 1964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자유이주의 형성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주노동에 대하여 자본-토지와 계급-정체성 동맹을 맺고 있는 정체성 쪽 파트너인 (민주적)자유주의 세력이었다.

1965년 이민법안의 형성은 국내와 국외의 두 수준에서의 인종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공격에 기인하였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흑인의 시민적 권리 운동(civil right movements)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잭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이 부르클린 다저스(Brooklyn Dodgers)를 통해 메이저리그에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진출한 것이 1947년 이었고, 1954년의 브라운(Brown) 대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흑인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과는 따로 가르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1955년에는 백인과 버스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으로 유명한 로사 파크(Rosa Parks)가 백인에게 할당된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곧 몬트게메리(Montgomery)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졌다. 1956년에는 알칸사스(Arkansas)주의 리틀넷(Little Rock)에서 흑인과 백인학생간의 학교구분이 폐지되어, 흑인과 백인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러한 반인종주의 투쟁은 1960년 들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도 큰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특히, 냉전(the Cold War)이 미국의 인종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일조하였다. 즉, 구소련이 미국을 비판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레토릭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은 인종차별의 나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냉전 경쟁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생겨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UN이나 워싱턴에 파견된 대사들로부터도 많은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대내외적인 압력에 직면하여 1924년 존슨-리드 법안부터 유지되었던 인종에 기반을 둔 할당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하원을 중심으로 법 제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1965년 이민법은 인종에 기반을 둔 이주 할당제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국가별로 연간 20,000명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의 이주자의 수를 연간 170,000명까지 확대하였다. 이 법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조치였던 것은 가족의 상봉에 관련된 비자에는 발급 수량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노동자초빙제도를 실행한 국가 모두에 ‘연쇄 이주’(chain immigration)라는 현상을 가져온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1965년 이후 시작된 새로운 이주의 물결은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완전히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지만, 이 새로운 시기에는 특히 중남미와 아시아로부터의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증대하였다.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난민의 급격한 증대는 국

23) 냉전은 미국으로의 국제 이주 그 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도차이나와 쿠바로부터의 대량 난민의 급속한 유입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반대로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러시아와 동유럽 이주자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였다.

제국가체제가 국제이주의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급균열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유이주의 시대는 자본과 토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정체성균열의 관점에서 이 시대는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이 시기는 자본 및 토지와 자유주의의 계급-정체성 동맹의 승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계급균열 및 정체성 균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균열들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우선, 정체성 균열은 <그림3>의 균열구조를 유지하였다. 대신에 소위 토착론자들은 인종주의와 반카톨릭의 담론을 포기하고 친기독교와 영어에 대한 강조, 그리고 동화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민족 개념(민족 정체성)의 보수화를 촉진하면서, 현대식의 보수주의자로 환골탈퇴를 모색하였다.²⁴⁾ 이러한 담화전략의 이동은 자유주의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항테제를 정립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친기독교는 예전의 반카톨릭과는 달리 특정한 종교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고전적인 대항테제인 종교의 자유라는 담론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유일한 대안은 종교의 관용이라는 관념에 대한 호소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강조일 터인데, 이러한 관념이나 원칙 역시 보수주의자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반면에 영어에 대한 강조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단일어 교육정책 대 이중 언어 교육정책이라는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대립은 언어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원칙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언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화적 권리라는 점에서 보수주의자와 다문화주의자들은 일치하지만, 미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 있다. 즉 다문화

24) 여기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이론화로는 Huntington(2004)을 참조.

주의자들은 미국을 다민족 사회로 바라보며, 따라서 각 문화집단의 언어적 독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이주집단들은 이러한 단일한 민족에 동화되기 위하여 영어를 반드시 제일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은 이주자들을 동화(assimilation)시킬 것인가 이주자들이 통합(incorporation)해야 하는가라는 논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이 기독교와 영어를 통하여 미국 민족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에 통합론자들은 이주자들이 그들이 처한 불합리를 극복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미국 사회의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미국사회와 이주자집단 모두를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새로운 이주자들은 미국사회의 민주적 균형추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행위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균열상의 대립의 발전과 전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체성 균열은 유지되어 왔다.²⁵⁾

그렇다면 계급균열은 어떠한가? 우선 이주노동이 필요한 자본 및 토지의 분야가 분화되어왔다. 토지의 경우, 이주노동에 대한 수요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지만, 자본의 경우는 특정한 산업 섹터에서 이주노동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건설, 그리고 첨단산업이 이러한 섹터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글에서 정치경제학 모델로 전제된 요소 중심적 무역이론 보다는, 산업별 섹터의 독자성과 섹터

25) 이 점에서 헌팅턴은 균제일확이다. 그의 핵심적인 질문중의 하나는 왜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동화를 잘 했는데, 히스패닉 이주자들은 동화가 잘 안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은 이주자들이 동화되어야한다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가정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이주자와 히스패닉 이주자들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정체성 균열선 자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간의 갈등을 전제하는 섹터 중심적 무역이론(Friden 1988)이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산업별 섹터가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갈등을 전개하는 섹터 중심적 무역론과는 달리 국제이주노동과 관련해서는, 즉 국제이주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섹터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국제이주노동이 필요한 섹터의 경우 그것을 이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면에, 국제이주노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섹터의 경우에는 무관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반면에 노동의 경우, 자유이주시기에 그 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이 점은 아래의 <표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국의 노동조합율의 변화를 통하여 추적할 수 있다.

<표 3>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율

년도	노동조합 가입율
1935	6.7%
1945	21.9%
1955	24.7%
1965	22.4%
1975	20.7%
1985	18.0%
1995	14.9%

출처: Plorke 1999, 307

<표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5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해왔다. 특히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이주했던 1985년과 95년 사이에서 노동조합조직율의 하락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노동조합조직율의 하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었고 현재는 13% 이하로 내려가 있다(Mishel et al. 2005, 89). 그러나 최근의 노동조합 조직율(13%)은 상대적으로 조직율의 하락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조직율의 하락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은 70년대 후반부터 조직율의 하락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였고, 그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의 중국계 식당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려 했던 1978년의 노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뉴욕의 중국계 식당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1978년 봄,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던 수백명의 중국계 식당 이주 노동자들이 호텔 및 식당 노동조합(Hotel Employees and Restaurant Employees: HERE)과 연계되어있던 지역 69(Local 69)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계 노동자들은 69가 중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거대한 식당들에 대항하여 그들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69는 식당 종업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국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미온적이었다. 중국계 노동자들의 69 가입은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에(따라서 69의 조합 수입은 계속 늘어난 반면에), 69는 중국계 노동자들의 요구들(중국인 고용주들과의 협상의 강화 및 투명성 보장,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구성 등)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몇몇 쟁의조정 과정에서 69는 중국계 노동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협상을 중국계 고용주들과 체결하기도 하였다(Tait 2005, 129-132).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반발하여 중국계 식당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노동조합(Chinese Staff and Workers' Association: CSWA)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문화혈통적 노동조합(ethnic labor union)인 CSWA의 형성은 계급균열과 정체성 균열에 여러 가지의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계급균열의 관점에서는 문화혈통적인 이주 공동체 내부에서 자본과 이주노동간의 계급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정체성 균열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계급균열로 파악되었던 노동과 이주노동간에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문화혈통적 공동체의 내부에서 노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만일 사업노동조합(business labor union)을 만난다면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급균열을 반영하여 노동으로부터도 수탈을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적 계급균열(문화혈통적 자본과 노동)과 이중적 정체성 균열(보수주의자와 노동)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유일한 연대세력은 오직 자유주의자(liberal) 뿐이다.

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또 다른 변화는 몇몇 산별노조의 일종의 이주노동자화를 들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서비스 산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과 UNITED HERE!를 들 수 있다. 특히 고질적인 노동조합 가입율의 하락에 직면하여 이들 노동조합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Hous 1995).²⁶⁾ 이러한 적극적인 조직화의 결과 SEIU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계 식당 이주노동자의 사례와는 달리 이들 조합들은 이주노동자와의 문화적 갈등에 훨씬 민감하여, 조직화 과정에서 이중 언어 리더십을 구축하거나 변호사 역시 이중 언어 사용자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자체로부터의 리더십 구축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6) 이것이 가능한 두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로 미국 산업구조 자체의 변동, 즉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이동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자체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과 둘째로 자유이주시기에 들어온 새로운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표 4〉 SEIU의 조합원 수

연도	조합원수
1980	625,000
1996	900,000
2000	1,400,000
2006	1,800,000

이러한 노동의 이주노동자화는 기존의 노동과 이주노동자간의 간격을 좁히거나, 혹은 그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온 반면에, 기존 노동 내부에서의 분화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분화는 2005년 여름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노동총연맹(AFL-CIO) 총회에서 가시화되었다. 이후 SEIU를 주축으로 7개의 전국적인 산별노조들은 소규모 노동조합의 대규모 노동조합으로의 통합, 산별노조들의 그 산업에서의 노동조합 조직화의 집중, 노조 자금의 조직화로의 대규모의 이동 등을 요구하였고(McNeill 2005),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를 조직하면서 미국노동총연맹을 탈퇴하였다. 이들 요구들은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이주)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데 필수적인 요구들이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이주노동에 반대했던 AFL-CIO는 자체 노동조합 가입율의 만성적인 하락과 (불법) 이주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승리를 위한 변화’의 이들에 대한 조직화의 성공을 교훈삼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주노동 그 자체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²⁷⁾

27) 이주노동에 반대하면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어떤식으로든 미국내에 들어와

이러한 자유이주 시기의 계급균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에서 더 이상 보호이주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로운 국제이주노동을 찬성하는 분파가 출현했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분파의 출현은 재구성 모델에도 치명적이다. 즉, 재구성 모델은 이러한 분파의 출현과 그것의 이주노동과의 연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파의 출현에 대한 설명은 국제무역론에 근거한 로고위스키 모델의 재구성 보다는 차라리, 산업구조의 변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상 분포,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한 의식적, 실천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높은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다.

4. 결론

이제까지 이 글은 국제이주노동의 제이론들을 검토하고 노동의 국제적 이주가 미국의 국내정치, 즉, 미국 내의 정치적 균열구조와 정치적 동맹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SIR의 논의에 기반한 로고위스키 모델을 재구성하여 국내정치에 대한 이주노동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재구성된 모델을

있는 이주노동자는 조직화하는 대신에, 앞으로 들어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AFL-CIO의 입장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미래의 이주노동자를 산출할 노동자초빙제도에 반대하지만, 기존의 이주노동자들을 사면하거나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에는 찬성하고 있다. 최근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과 논쟁으로는 이충훈(2006a; 2006b)을 참조.

28)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이민법개정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초빙제도(guestworker program)에 대해서 이들은 부시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부시정권과는 달리 노동자초빙제도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케네디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두 시기를 구분하여 그것의 역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주노동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국내 정치인 정체성의 정치를 그것과의 연관성속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이 글의 마지막 문제, 즉 새로운 노동분파의 출현과 이주노동과의 연대는 재구성 모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 사용된 로고위스키 모델과는 다른 다양한 국제무역론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ogowski 2006 참조). 특히 이 중에서도 SIR에 기반한 프리든(Jeff Friden)의 섹터모델(sector model)을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Friden 1988). 이 섹터 모델은 이주노동과 관련된 각 산업간의 갈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으로 국제이주노동을 설명하는 분석틀도 여전히 재 고찰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이주노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변화 역시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는 국제이주노동과 관련된 계급적 균열구조와 정치적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이주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제고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재구성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주노동이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에 국가가 개입하는지, 개입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개입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그러한 과정에 개입한다면, 이주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균열구조와 동맹 관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러한 개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좀 더 풍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²⁹⁾

노동의 국제적 이주는 양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 무역의 한 요

29)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한 일단의 분석으로는 이충훈(2005)을 참조.

소로서 그것은 종종 국경을 넘어서 교역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이주는 단지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행위자들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의 다른 요소와는 구분된다. 특히 후자의 의미에서 이주 노동을 고찰하는 연구들은 그것이 미치는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경제학적 접근법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적 관점에 너무 지나치게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이익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국제적 이주가 가져오는 다른 차원의 정치, 즉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역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 ‘계급균열과 정체성균열’간의 통합은 가능한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익과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합이나 재구성에 있기 보다는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실천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들의 참여가 중요해지는 맥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이충훈. 2005. “미국의 사증 통제와 이주노동자: 국가 통제의 메커니즘.” 『지역사회학』 . 6(2).
- 이충훈. 2006a. “이주의 정치: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참세상』 . 2006. 3. 29.
- 이충훈. 2006b. “미국 이민법 개정: 각 정치세력의 입장분석.” 『레디앙』 . 2006. 4. 3.
- Barde, Robert E. et al. 2003.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D-ROM.
- Bonacich, Edna.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 Review*. 38(5).
- Bonacich, Edna and Ivan Light.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rjas, George.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 Brettell, Caroline B.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0.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Routledge.
- Castells, Manuel. 197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ggles in Advanced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5(1)
- Castles, S. and G. Kosack. 1985(1973).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iswick, B. 2000.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in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Routledge.
- Cohen, Lizabeth. 1991. *Making a New Deal: Industrial Workers in Chicago, 1919-19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New York: Verso.
- Friden, Jeff. 1988. "Sectorial Conflict and Foreign Economic Policy, 1914-1940."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 Geddes, Barbara. 2003. "How the Cases You Choose Affect the Answers You Get." in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ourevitch, Peter. 1978.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4).
- Gurowitz, Amy. 1999. "Mobilizing International Norms: Domestic Actors, Immigrants, and the Japanese State." *World Politics*. 51(3).
- Higham, John. 1955.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 1860-192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Hous, Leah. 1995. "Openings in the Wall: Transnational Migrants, Labor Unions and U.S.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2).
- Huntington, Samuel P. 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huster.
- Jokke, Christian. 1998. "Why Liberal States Accept Unwanted Immigration." *World Politics*. 50(2).
- Jones-Correa, Michael. 2005. "Bringing Outsiders In: Questions of Immigrant Incorporation." in Christina Wolbrecht and Rodney E. Hero (eds.). *The Politics of Democratic Inclus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Jung, Courtney. 2006. "Race, Ethnicity, Religion." in Robert E. Goodin and Charles Tilly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tznelson, Ira and Martin Shefter (eds.). 2002. *Shaped by War and Trade: International Influences o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Kewon, Adam. 2004. "Global Migration, 1846-1940." *Journal of World History*. 15(2).
- McNeill, Jim. 2005. "Labor Divided." *Dissent*. Fall.
- Massey, Douglas., J. Arango., G. Hugo and J. E. Taylor. 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Clarendon Press.
-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Sylvia Allegretto. 2005.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4/200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Ngai, Mae M. 2004.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kin, Susan Moller.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ore, Michael.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otke, David. 1999. "Immigration and Political Incorporation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in Charles Hirschman,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1989. "The Enclave and the Entrants: Patterns of Ethnic Enterprise in Miami before and after Mari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 Portes, Alejandro and Leif Jensen. 1987. "What's an Ethnic Enclave?: The Case for Conceptual Clar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6).
- Rogowski, Ronald. 1987. "Political Cleavages and Changing Exposure to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4).
- Rogowski, Ronald. 2006. "Trade, Immigration, and Cross-Border Investment." in Barry R. Weingast and Donald A. Witt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ssen, Saskia.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lair, Leslie. 2001. *The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Oxford: Blackwell.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ark, Oded and David Bloom. 1985. "The 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 Stark, Oded. 1991. "Relative Deprivation and Migration: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Sergio Diaz-Briquets and Sidney Weintraub (eds.). *Determinants of Emigration from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Boulder: Westview.
- Tait, Vanessa. 2005. *Poor Workers' Unions: Rebuilding Labor from Below*. Cambridge: South End Press.
- Taylor, J. Edward. 1999. "The new economics of labour migration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37(1).
- Tilly, Charles. 1975.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 Todaro, Michael and L. Mzruszko. 1987. "Illegal Migration and US Immigration Reform: A Conceptual Framework."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 Zhou, Min. 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 Zolberg, Aristide. 1999. "Matters of State: Theorizing Immigration Policy." in Charles Hirschman,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